

1. 일반복식

1) 여성복

(1) 치마(치매)

치마는 크게 보통치마와 작업복치마로 분류한다. 보통치마는 현재의 한복치마 형태로 귀치매, 또는 깃치매(자락치마), 말치마(가슴을 조이게 하는 치마), 허리치매, 궤적치매(찰찰 처지는 느낌이 난다), 베레또치마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베레또치마는 겨울에 주로 입는 것으로 결혼시 함 안에 넣어 보내기도 했다. 아주 가난한 경우에는 짚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고, 궤적치마는 외출용으로 입었다. 치마 폭수는 8폭 정도였다. 치마 길이는 저고리가 길면 짧았고, 저고리 길이가 짧으면 길었다.

여름에는 삼베나 모시를 소재로 하여 홑겹으로 만들어 입었고, 겨울에는 무명(미명), 면(명주), 광목 등으로 겹치마를 해 입었다. 나일론이 나온 이후에는 봄·가을에 춘추 나일론을 입었다. 색상은 남색, 검은색, 연두색, 옥색, 흰색, 밤색, 치자색, 붉은색 등으로 다양했다. 치마 꼬리의 방향은 예전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왼쪽으로 여며 입고 서민층에서는 오른쪽으로 여며 입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왼쪽으로 바뀌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상을 보인다.

작업복치마는 주로 통치마, 돈박치마(짧은 치마)를 입었고 앞치마를 착용했으며 허리에 끈을 묶었다. 때가 많이 타므로 검은색 같은 진한 색을 많이 입었다. 작업복의 재료는 무명이 대부분이었으며 검은 물을 들이는 방법은 조다리물을 장에서 사다가(물장사라 불리는 사람이 염료 종류를 팔았다고 한다) 갯물에 풀어서 오래 담가놓았다. 일제시대 이후에는 몸빼를 입었다.

(2) 저고리(저구리)

종류에는 솜을 누벼서 만든 저고리로 가슴까지 내려오는 겹저고리(겹저고리), 부유층이 명절 때 끝동에 다른 색 천을 대어 입은 회장(호장)저고리, 대부분의 서민들이 입은 민저고리, 겨울철 부유한 사람들이 입은 솜토시 등이 있다.

현재는 예복으로서 길이가 짧은 편이나, 옛날에는 일하기 편하도록 가슴을 완전히 덮을 정도로 길게 지어 입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짧은 사람의 경우에는 짧게 입어 가슴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을 두르기도 하였다. 소재는 치마에 비해 다양했는데 대부분은 면·포플린·갑사 등을 사용했다. 여름엔 삼베·모시 등을 사용했고 설·추석 등의 명절에는 비단옷을 해 입기도 했다. 명절 때는 흰색이나 옥색 바탕에 물들여 입거나 꽃무늬로 수를 놓아 입기도 했다.

저고리에 덧대는 동정(동전)은 청결을 유지하면서 외관상 깨끗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보다 폭이 넓었고 지금과 같이 동정을 따로 판매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하얀 깃데기를 잘라 천(베)을 붙여서 만들거나 참종이를 베와 함께 접어서 밥풀로 붙여 만들기도 하였다. 더러는 달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두루마기는 어렵게 살던 시기라서 입는 사람이 흔하지 않았으며, 있는 사람은 외출할 때만 입고 나갔다고 한다. 사용했던 소재로는 포플린·면·명베·기지 등이 있고 여름엔 삼베로 홑두루마기, 겨울엔 모직 두루마기를 입었다.

색상은 주로 흰색이었으나 검정물을 들여 입기도 하고 나이가 젊을수록 밝은 색을 입었다.

(3) 머리 모양과 치장

혼례 전에는 남자머리를, 혼례를 치르고 난 후에는 쪽진머리를 하였지만 나중에는 파마가 유행하였다. 그런데 그당시 파마는 요즘처럼 파마약을 사용한 게 아니고 불파마라는 숯불을 이용한 것이었다. 그당시 파마를 한 상당수의 할머니들은 남편에게나 부모님께 혼이 났다고 한다.(제보자 :박봉래, 64세, 송광면 신흥리) 쪽진머리에는 비녀를 사용하였는데 납·사기 비녀가 많았고 부유한 경우에는 은비녀가 많았다. 비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뒷머리를 두 갈래로 엇갈려서 앞쪽에서 매듭지어 올렸다. 머리를 올리지 않은 경우에는 바깥 출입을 못하였다.

남자머리에는 공단으로 댕기를 만들어 장식하였고 달비를 이용하여 머리술이 많아 보이게 하였다.(머리에 달비를 포개 함께 틀어 남자를 함) 머리는 보름에 한 번 정도 감았는데 보리 쌀을 끓일 때 그것이 완전히 끓기 전 미끈미끈한 물로 머리를 감아 요즘의 샴푸를 대신했고 머리치장은 흔히 피마자(아주까리)기름, 동백기름으로 머리결을 정돈하였다. 또 빗에는 화류빗, 열레빗(열개빗), 반달빗, 부채빗, 참빗, 상투빗, 화각빗 등이 있어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참빗은 살이 가는 대올로 촘촘히 엮은 대빗이다. 이 참빗 등마루에는 대개 낙화(인두 같은 것으로 지져서 그린 그림)를 그려넣는다. 화각 참빗은 낙죽 대신 화각을 붙여 한결 아름답게 꾸민 것이다.

여인에게 머리를 빗는 도구 중에서 빗 이외에 가장 필요한 빗치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 빗살 틈에 낀 때를 빼거나 머리 빗을 때 그리고 가르마를 똑바로 하는 데 쓰였는데, 넓적한 쪽으로는 밀기름을 약간씩 발라 썼다. 얼굴의 솜털이나 눈썹 또는 가시를 뽑는 도구였던 쪽집게는 지금도 여성들 사이에 사용되고 있다.

(4) 속 옷

이렇다 할 상의 속옷이 없었고 단지 가슴이 볼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말이라 불리는 넓은 치마끈 같은 것으로 조여 매어 요즘의 브래지어를 대신했다. 흰색 명베 적삼을 입었고 없는 사람은 그냥 옷을 여러 겹 껴입었다.

하의 속옷은 요즘의 팬티를 대신하는 다리속곳, 속속곳, 고쟁이, 단속곳을 입었지만 가난했던 민가에서는 다 갖추어 입기 어려워 한 가지, 또는 두서너 가지로 줄여서 입는 경우가 많았다. 하의가 상의보다 매우 다양한데 상체보다는 하체를 더욱 중요시하는 동양사고를 읽을 수 있다.(인도에서는 얼굴을, 서양에서는 가슴을, 동양은 하체를 가장 중요시한다) 소재로는 여름엔 삼베에 풀을 뽀뽀하게 먹여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였고, 겨울에는 겹바지라고 불리는 고쟁이와 같은 바지를 입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다리속곳은 요즘의 팬티처럼 가장 안에 입는 속옷이다. 주로 삼베나 명베로 만들어 입었으나 그나마 입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단애, 단의, 다네, 단이 등으로 불리는 속속곳은 길고 풍성한 치마바지 형태이다. 한쪽 가랑이가 3폭씩 되어 그 가랑이를 들어올려 용변을 보았다. 본래 속속곳과 단속곳이 형태는 비슷하지만 크기는 겉에 입는 단속곳이 조금 크다. 바지 밑에는 속속곳, 바지 위에는 단속곳을 입도록 되어 있다.¹⁾ 다네란 1986년 진주·사천지방의 민속조사에 따르면 단의, 즉 단속곳을 말한다고 하며 경남지방의

민속조사에서는 속곳 다음에 다네, 고장주, 속치마를 입는다고 하여 속속곳을 지칭하기도 하였다. 고쟁이나 바지 안에 입기도 하고 또는 겹에 입기도 하면서 명칭은 구별 없이 단의로 부르고 있다.

고쟁이는 용변을 보기에 편하도록 앞뒤가 트여 있다. 마치 다리 두 갈래를 허리맡기로 붙여 놓은 형태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뒤만 트인 것도 있다. 그리고 요즘은 생리대를 모두 일회용으로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흰 옷이나 수건을 누벼서 양쪽에 끈을 달아 사용하거나 가제를 사서 생리대를 만들어 사용했다.

1) 유희경, 앞의 책, 496쪽.